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조성윤*

〈차 례〉

1. 서 론
2. 조선전기의 제주도 인구
3. 조선후기의 제주도 인구
4. 조선말기의 제주도 지역별 인구구성
5. 결 론

1. 서 론

인구는 어떤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려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 사회의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인구 이동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가 사회 구조 분석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耽羅國 시대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濟州島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하였으며, 이들은 어디서 왔고, 또 육지와와의 상호 인구 이동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제주도 역사 연구의 기초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실이다. 일제하와 해방 이후의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제주도 인구에 대한 통계적 검토는 있지만¹⁾, 그 이전, 즉 조선시대에 관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구 변동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 래야만 출산율과 사망율, 그리고 인구 이동율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인구 구성이나 인구 성장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근대적인 방법으로 인구 현상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인구 센서스 자료이다. 그러나 중세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시대의 기록 중에서 인구를 말해 주는 자료들을 모두 모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조선 초기부터 간간히 자료가 보이기 시작해서, 조선후기로 들어서면 좀더 자료가 많아지며, 조선말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용 가능한 자료가 크게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호구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에서 조선말기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재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 변화의 흐름을 가능한 대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치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개략적인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그칠 예정이다.

2. 조선전기의 제주도 인구

- A. 濟州賑濟使啓, 濟州牧民家二千二百十六戶, 旌義縣六百四十戶, 大靜縣六百二十戶. 乞移忠淸道沿海各官及全羅道各官雜穀, 安戶給豆木麥小豆各種一斗, 以督耕田, 以活民生 「世宗實錄」 권3 世宗 1年 4月 丁亥
- B. 吏曹啓, 濟州領內大靜縣一千三百二十七戶, 旌義縣八百五十戶, 請兩縣差教導, 從之 「世宗實錄」 권34 世宗 8年 12月 乙丑
- C. 濟州安撫使啓, 本州三邑, 俱失農業, 義倉雜穀及田稅不收者過半, 且無救荒之物, 今考三邑人丁之數, 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名, … 「世宗實錄」 권66 世宗 16年 12月 庚戌.

1) 李映勳(1989), 「日帝下 濟州島의 人口變動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李昌基(1999), 「濟州島의 人口와 家族」, 영남대학교 출판부.

D. 兵曹與政府諸曹同議啓,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戶, 人口六萬三千九十三名, 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十八卜, 地利有限, 食之者衆, 救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徙居陸地, 私賤亦從本主自願出陸. 從之. 『世宗實錄』 권70 世宗 17年12월 己酉.

위의 자료들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호구수를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그 보다는 오히려 기근이 들었을 때 진휼(賑恤)을 위해서, 또는 다른 필요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인용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름대로 이미 보고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것이 전국의 행정 기관이 호구 실태를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호구조사 결과는 아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기준이 된 것은 호구조사시에 작성된 것이 戶籍이 기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호적 작성의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군병의 수를 파악하고 각종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때문에 남자 장정(壯丁)의 숫자가 중요시 된 반면, 어린이와 여성의 숫자는 애초부터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따라서 많은 숫자가 빠져 있다. 한편 호주들은 가능한 자기 집 장정의 숫자를 줄여 보고하려 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 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戶가 우선적인 기준이었으며, 실제 존재하는 장정의 수를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병정을 뽑고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중앙 정부가 각 시도별로 할당량을 정해주면 이에 맞게 적당히 호구 숫자를 보고를 하는 방식(이런 방식을 編戶 방식이라고 부른다)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많은 호구가 누락되었다. 학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에 실린 인구가 전체의 약 50-7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표 1〉 조선전기 제주도의 호구수

구분 연도	戶				人 口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	合 計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	合 計
世宗實錄地理志	5,207	685	1,357	7,249	8,324	2,073	8,500	18,897
세종 1(1419)년	2,316	640	620	3,576	-	-	-	-
세종 8년	-	850	1,327	-	-	-	-	-
세종 16(1434)년	-	-	-	-	-	-	-	63,474
세종 17(1435)년	-	-	-	9,935	-	-	-	63,093
성종 9(1478)년	-	-	-	9,400	-	-	-	-

〈표 1〉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의 경우 세종대와 성종대의 기록밖에 없다. 그것도

남녀 구분이 안된 채로 호수와 인구수 만 기록했다. 1419년의 3,576호는 불과 16년 뒤인 1435년의 9,935호에 비해 엄청나게 적다. 이 수치는 호적법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부역·군역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남자 성인 인구만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실제 호구 조사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1434년과 1435년의 연속된 보고가 더 현실에 가깝다. 당시 인구수가 각각 63,474명, 63,093명으로 일정하고, 1478년의 호수가 9,400호로 기록된 것을 종합해 보면, 세종 시기의 호수는 9천-1만호, 인구는 6만3천명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조선초기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종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육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다. 원나라 유민들도 대거 유입되었고, 건국 과정에서 유배당한 자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高·梁·夫 등 몇몇 성씨를 제외한 金·李·朴 등 많은 주요 성씨들이 이때부터 제주에 入島, 정착하게 되었다. 또 제주에서는 僧侶에 대해 軍役이 없고 寺院에서도 優待하였으므로 많은 僧徒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며, 그밖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온 자들도 있어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雜居하였다고 생각된다.²⁾

물론 고려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왕조 초기부터는 거주지 이동이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했고, 지역의 인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각 지방관청마다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거나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 살길을 찾아 떠나곤 했다. 한편 관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주로 유배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주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다.⁴⁾

반면 조선초기 목장지대의 관리 체계가 정비되면서, 중산간의 초원지대가 모두 목장 지대로 묶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초원지대에서 농경지를 일구어 농사짓던 수백

2) 『世宗實錄』 권53 世宗 13年 7월 己巳.

3) 제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는, 제주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제주 목관(濟州牧官)의 행장(行狀)에 쫓고, 제주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육지의 각 고을의 행장에 쫓아 관승(館丞)이 엄중하게 검사하며, 행장이 없는 자는 감사에게 보고(報告)하여 본래 있던 데로 돌려보내게 하여, 이쪽과 저쪽 사람들이 유이(流移)하는 일이 없게 하고, 관승(館丞)의 승진과 파면은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世宗實錄』 권45 世宗 11年 8월 庚子.

4) 『世宗實錄』 권93 세종 23년 7월 11일 乙巳.

호가 모두 목장 밖으로 밀려났고, 농경지는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화전 역시 강력히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세종대에는 인구수가 6만3천여명에 이르렀는데, 식량이 자급되지 못하였으므로 흉년이 들면 牛馬를 훔쳐 잡아먹으며 연명하는 도적들이 늘어났으며, 중앙정부의 관리들도 자주 제주도의 인구 증가를 염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제주 출신 고득중은 세종에게 “제주의 牛馬賊을 서북지방에 移居시켜 생업을 주어 생활 안정을 시키면 제주에 인구밀도도 완화되어 식량 곤란이 덜게 되고 또 우마적이 없어져 우마 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소하여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 때 처음으로 제주인이 집단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도로 강제 이주되었다.⁵⁾ 그 뒤에도 제주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먹고살기 힘들니, 제주민들을 육지로 나와 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유입 현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그 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말까지 약 200여년 동안 이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인구 증가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인구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토 방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목장 지대이자 감귤, 전복 등의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貢物 생산지인데,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물론 전염병이나 기근 따위의 자연 재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주도민 중 상당수가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주민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던 고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사는데 그리 큰 제약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정착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마을을 떠나 도망가버리는 일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게다가 큰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돌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유민이 되었다.

이 시기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에서 도망 나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을 흔히 포작인(鮑作人)이라 불렀다. 포작인이란 이른바 출륙제주도민(出陸濟州島民), 즉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벗어나 주로 전라도·경상도 바닷가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살던 제주도민을 가리킨다.⁶⁾ 포작인이라는 명칭 말고도, 포작

5) 『世宗實錄』 권72 世宗 18年 6月 乙卯.

6) 韓榮國(1981), 「頭毛岳考」, 『韓沽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809쪽.

한(鮑作漢), 두독야지(豆禿也), 두무악(頭無岳), 두모악(豆毛岳)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⁷⁾ 이 가운데 두무악, 두모악이라는 명칭은 한라산을 가리키는 명칭을 따서 제주도 사람들을 부른데서 연유한다.⁸⁾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탈출한 제주도민들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해안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상당수는 다도해의 여러 섬에 정착하였다. 성종은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豆禿也)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착(碇泊)하는 자가 수천여 인이라”⁹⁾고 하였고, 또 “제주(濟州) 사람들 2백여 명이 사천(泗川)에 와서 사는데, 제주(濟州)의 「두독야(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드나들더니, 이제는 32척으로 늘어났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노막(蘆幕: 갈대로 엮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한다.”¹⁰⁾는 기록도 보인다.

성종 16(1485)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포작인들을 조사해 바치자, 중앙의 관리들이 의논하면서 “이 무리들은 모두 제주에서 도망쳐 왔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집이 없이 처자를 거느리고 배 위에서 기생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육지 연안 지방으로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는 자들로서, 일부는 수적(水賊)으로 활동하여 정부의 골치 거리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전라도의 연변(沿邊) 순천(順天)·흥양(興陽)·낙안(樂安) 등 여러 고을과, 경상도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 곤양 등지로 흩어졌으며, 동래·부산·울산의 해안에도 정착하고 있었다.¹¹⁾ 심지어는 평안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의 해랑도(海浪島)에도 도망해 들어간 자들도 20여명이 되었다.¹²⁾

성종 4년 경상도 관찰사가 조사해 보고한 것을 보면, 양인(良人) 91명, 정병(正兵) 3명, 선군(船軍) 12명, 공천(公賤) 29명, 사천(私賤) 17명이었다.¹³⁾ 이들은 제주도민

7) 『成宗實錄』 권83 成宗 8年 8月 己亥./ 『成宗實錄』 권86 成宗 8年 11月 甲申./ 『成宗實錄』 권262 成宗 23年 2月 己酉.

8) 오창명(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48쪽.

9) 『成宗實錄』 권86 成宗 8年 11月 甲申.

10) 『成宗實錄』 권145 成宗 13年 8月 戊寅.

11) 『成宗實錄』 권177 成宗 16年 4月 癸亥./ 『成宗實錄』 권85 成宗 8年 10月 己酉./ 『成宗實錄』 권85 成宗 8年 10月 己未./ 『成宗實錄』 권145 成宗 13年 8月 戊寅. / 『成宗實錄』 권197 成宗 17年 11月 癸亥.

12) 『成宗實錄』 권268 成宗 23年 8月 壬寅, 戊申.

13) 『成宗實錄』 권28 成宗 4年 3月 戊午.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난한 자들로서 배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현종 5(1664)년에 충청 감사 이익한(李翺漢)이 “신이 일찍이 제주(濟州)를 맡고 있을 때 보니, 본주의 각사 노비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¹⁴⁾고 보고한 것을 볼 때, 수많은 노비 신분의 제주도민들이 신역과 각종 공물 상납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육지에 정착한 제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성종 대에 수천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앞에서 각사 노비가 1만 명에 가깝다고 한 것을 미루어 적어도 2만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자, 중앙 정부는 전라도 경상도로 하여금 포작인들의 현황을 조사시키고, 이들을 붙잡아 제주도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상도·전라도 두 도(道)에 유이(流移)하는 인민(人民)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여 제주도 세 고을의 호적(戶籍)과 맞추어 보도록 했다. 떠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法)을 엄하게 세워서 그 가는 고을과 이르는 고을에서 일일이 서로 보고하여 즉시 되돌려 보내도록 하였다.¹⁵⁾

하지만 정착 문제는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지방 수령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별로 돌려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방의 수령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작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결코 막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로부터 각종 조세를 거두어들이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들이 고기잡이는 물론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머물기를 바라기까지 하였다.¹⁶⁾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였다. 때문에 아예 중앙정부가 敬差官을 파견하여 직접 지휘하면서 제주의 3고을에서 육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제주도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¹⁷⁾ 그럴 경우 수령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수군책임자들 역시 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포작인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주도 출신 포작인들은 이미 수군에서 배를 조종하는 중요한 몫을

14) 「顯宗改修實錄」 권12 顯宗 5年 11月 庚子.

15) 「成宗實錄」 권86 成宗 8年 11月 甲申./ 「成宗實錄」 권178 成宗 16年 4月 己亥./ 「中宗實錄」 권92 中宗 35年 1月 癸卯.

16) 「成宗實錄」 권197 成宗 17年 11月 癸亥./ 「中宗實錄」 권87 中宗 33年 2月 乙卯.

17) 「中宗實錄」 권92 中宗 35年 1月 癸卯.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군 절도사 유홍(柳弘)이 “저들이 모두 본도에서 쇠환되면 배를 부릴 사람이 없게 된다.”¹⁸⁾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兵曹에서 “... 듣건대 그들이 사용하는 배[舟楫]들은 튼튼하고 치밀(緻密)하고 가볍고 날카로와서 왜적(倭賊)을 따라가 잡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하니, 청컨대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이것에 의거하여 만들도록 하여 위급한 데 쓰도록 하소서.”라고 제안하여 허락을 얻어내고 있는 것¹⁹⁾은 물론, 임진왜란 때는 이들이 수군으로 배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로의 강제 쇠환(刷還)이 쉽지 않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자들은 놓아두고 도망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을 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포작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 하여금 배에 자호(字號)로 표(標)를 붙이고, 바다에 나갈 때는 증명서인 노인(路引)을 주도록 하여 통제하고, 만일 노인이 없거나 혹은 표가 없는 배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하면 처벌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유랑을 막고 정착을 유도하기로 하였다.²⁰⁾ 그러나 막상 전라도 경상도의 해안 지방에 정착하게 된 포작인들은 언어와 풍속이 달랐고, 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로 부터 기피 대상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끼리 바닷가에 마을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²¹⁾

중종 대에 제주 목사가 중앙 정부에 올린 장계를 보면, “제주는 토질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여 이주해 나가는 자가 많고 붙잡혀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주(本州)는 민호(民戶)가 사망하면 친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빚 독촉이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모두들 떠나 흩어져 반은 폐허가 된 실정이니, 공물(貢物)을 줄여 주십시오. ... 정의에서는 목자(牧者)와 어호(漁戶)로 지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 가운데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 대정은 사람들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렸으니 제주읍의 금물(金物)과 악리(岳里)를 떼어 붙여 주십시오.”²²⁾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제주도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삼읍 모든 곳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대정의 경우에는 현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제주읍의 일부 지역을 대정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18) 『中宗實錄』 권92 中宗 35年 1月 癸卯.

19) 『成宗實錄』 권85 成宗 8年 10月 庚戌.

20) 『成宗實錄』 권161 成宗 14年 12月 乙丑.

21) 韓榮國(1981), 「頭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22) 『中宗實錄』 권41 中宗 16年 3月 壬戌.

이상 간략히 살펴본 조선전기 제주도 인구는 약간의 자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지만, 호적상의 기재를 토대로 볼 때 대체로 6만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보면 두배 정도 즉 약 10-12만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성종대 이후 지속적인 도망 때문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2-3만명 정도가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본다면 임진왜란 전후의 인구는 8만-10만 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조선후기의 제주도 인구

조선전기 내내 제주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치른 바 있다. 특히 조선중기부터 제주에 살던 사람들이 급속히 육지로 빠져나가면서, 한 때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물론 제주도 토지가 척박해 먹고살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앙정부에 바쳐야 하는 감골, 전복 등 각종 공물(供物)이 지나치게 많아 주민들의 고생이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도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인조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내렸다.²³⁾ 즉 모든 제주민들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육지 나들이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인조 7년(1629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²⁴⁾은 약 250여년간 계속되다가 조선말기에 이르러서야 풀리게 된다.

조선전기 내내 제주도민들이 도망쳤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의 경작지 부족과 척박한 농업 사정 때문에 주기적으로 닥치는 흉년의 식량난을 견디기 힘들다는 점과, 제주도민들의 경제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관의 각종 부역과 진상품 요구와 지방 토호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책을 쓰는 쪽으로 정책이 집행된 것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인구 유출, 즉 제주민이 섬 밖으로 도망 나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출륙금지령을 내렸고, 조선후기 내내 철저한 출륙금지정책을 유지했었다. 배를 타기 위해서는 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했으며, 부두에는 육지를 오가는 배의 승객

23) 金泰能(1982), 『濟州島史論考』, 53쪽.

24)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仁祖實錄』 권21 仁祖7年 8月 乙丑.

을 감시하는 관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고깃배는 멀리 갈 수 없는 테우(뗏목을 묶어 만든 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출륙금지령은 국내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고, 또 배를 모는 솜씨가 뛰어났던 제주민들의 해상 활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를 조선 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제주도민들을 물로 사방이 막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게된 하층민들로서는 엄청난 부역과 진상품 마련에 끊임없이 동원되는 한편, 지방 토호들과 관리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주도민들은 기회만 닿으면 제주도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엄격한 감시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육지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관리들과 소수의 상인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섬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거의 없었다. 18세기 김만덕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을 풀어 굶주린 제주민들을 먹여 살리자, 왕이 특별히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때 그녀는 섬 밖으로 나가 금강산을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었고,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만큼 섬 밖의 세상은 제주민들에게는 가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이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었지만, 육지 다른 지방의 문화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 언어와 무속을 비롯한 민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표 2〉를 살펴보자. 표의 수치는 「朝鮮王朝實錄」, 「戶口總數」, 「耽羅營事例」, 「濟州大旌旆義邑誌」, 「民籍簿」, 「國勢調査」 등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앞의 것들은 조선정부에 의해서, 마지막 두 자료는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누가 조사했는가에 따라 조사결과가 크게 다르다. 그런데 우선 1672년의 통계는 그 뒤의 조선후기 통계들이 1만-1만1천호, 6만명-8만명 사이의 규모를 보여주는 반면, 8,490호에 3만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뒤의 조선후기 호구조사 통계와 호당 인구수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제주 지역의 호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⁵⁾

25) 「顯宗實錄」 권20 顯宗 13年 10月 辛未에는 “漢城府上戶口之數式年故也, … 濟州三邑, 元戶八千四百九十, 人口男一萬二千五百五十七口, 女一萬七千二十一口” 라고 하여 3년마다 이루어진

〈표 2〉 조선후기 한말 제주도의 호구수

(단위: 명, %, 間)

연 도	戶	人 口	戶當人口	男	女	性 比
현종13(1672)년	8,490	29,578	3.5	12,557	17,021	73.8
濟州邑誌(1780년대)	10,721	62,248	5.8	27,033	35,210	76.8
戶口總數(1789년)	10,758	63,316	5.9	27,336	35,970	76.0
정조16(1792)년	10,779	64,582	6.0	27,870	36,712	75.9
정조17(1793)년	-	61,453	-	-	-	-
헌종 8(1842)년	10,820	76,081	7.0	-	-	-
철종원(1850)년	11,124	79,910	7.2	37,771	42,139	89.6
철종 6(1855)년	11,426	81,896	7.2	38,704	43,192	89.6
耽羅營事例(1850년대)	11,209	80,841	7.2	38,298	42,543	90.0
고종10(1873)년	12,169	-	-	39,965	47,962	83.3
濟州大旌旆義邑誌(1899년)	10,776	64,510	6.0	27,853	36,655	76.0
1909년	33,763	124,134	3.7	60,250	63,884	94.3
1910년	31,751	126,028	4.0	60,003	66,025	90.9
1925년	-	208,331	-	96,236	112,095	-

출륙금지령 때문에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표 2〉를 보면 제주도의 인구는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았고, 호수와 인구수가 18, 19세기에 걸쳐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780년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870년대쯤 오면 8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뒤에도 호와 인구가 18, 19세기에 걸쳐 약간씩 증가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도 호구의 변화는 기근, 전염병 등의 자연적 요인과 출륙금지령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증감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는 5백년 동안 약간의 인구 증가를 이룬 것으로 정리할

정기 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아 놓고 있다. “大抵我國女多男少, 而女子之不入籍者甚多, 辛亥饑疫, 民死者相望, 流離相繼, 此則只據入籍之數而載之.” 이 말은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가 매우 많다는 점과 한 해 전인 1671년에 전국적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기 때문에 죽은 백성이 즐비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잇따랐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에 제시한 호구조사결과와는 호적에 들어 있는 숫자만 의거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시기 호구조사가 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그나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뒤에 붙여 놓는 것은 매우 이해적인 것으로, 그 뒤의 안정기에 실시한 호구조사와는 크게 달랐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 있다.

개항 직전인 고종 10년(1873)의 호수는 12,169호, 인구는 87,927명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정조 13년(1789)의 10,758호, 63,316명 보다 호수는 약 만5천호, 인구는 약 2만4천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을 당한 1910년에는 31,751호에 126,028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고종 10년에서 37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호수는 3배, 인구는 4만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갑자기 호수와 인구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조선후기 제주도의 9,000-12,000의 호수와 6만-8만이라는 인구수는 어디까지나 실제 호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된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20세기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호구 조사와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진행되었던 호구 조사를 통해 얻어진 1909년과 1910년의 통계에는 제주도의 경우 3만호, 12만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초의 근대식 인구 센서스라고 일컬어지는 1925년 조사에서는 인구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수치들은 결국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이며, 조선시대에 조사되었던 제주도 호구수는 현실의 일부 만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면 거꾸로 계산해 볼 때 조선후기 제주도의 인구는 실제로는 12만에서 16만 사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구 증가를 단지 조사 방법의 변화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말이 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외부인들의 제주도 유입 현상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98년 민란을 주도했던 방성칠(房星七)을 비롯한 남학당(南學黨) 집단은 약 2백여명으로 추정되는데, 1894년 갑오 농민전쟁 이후 전라도 지방에서 집단으로 흘러 들어와 광청리(光淸里: 지금의 동광 또는 서광리 지역) 일대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²⁶⁾ 물론 앞으로 좀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와같은 인구 유입에 의한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반면 출륙금지령이 풀렸다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갑자기 집단을 이루어 육지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말에는 약간의 외부 인구 유입과 제주도민들의 자체 재생산을 통해 약간의 인구 증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상 살펴 본 조선시대 제주도 호구의 변화는 기근, 전염병 등의 자연 요인과 많은 수의 출륙민의 도망과 이를 막으려는 출륙금지령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증감을 거듭하면서, 오백년 동안 약간의 인구 증가를 이룬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후

26) 조성윤(1986),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한국 전통 사회의 구조와 변동 - 한국 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4집』, 문학과지성사.

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끊임없이 기근이 들고, 굶주린 백성들이 늘어났으며,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만 석씩 진휼곡을 육지로부터 실어 날라 제주도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진휼곡이 때를 놓쳐 늦게 도착할 때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죽었다. 특히 정조연간에는 진휼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사이에 제주 인구가 한꺼번에 1만7000명이나 줄어들기도 했다. 게다가 간간히 전염병이 퍼지는데, 그럴 때면 한 번에 적으면 500명, 많을 때는 5000명 이상 사망하였다.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섬 지방의 사정과 전통사회의 의료 수준이 더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가로막았던 것이다.²⁷⁾

마지막으로 남녀 성비를 보자. 흔히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야기된다. 성비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인데, 100보다 적을수록 여자가 많은 것이고, 100을 넘어서면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 표에 나타난 모든 기록에서 성비는 100 이하이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언제나 남자 보다 많았음을 말해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가장 오래된 기록인 현종 13년(1672)에는 73.8로 여자 100명에 남자가 74명 정도였으며, 정조16년(1792)의 75.9까지 비율이 일정하다. 물론 철종대가 되면 성비가 90에 가까워져 남녀 불균형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여성 인구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는 물론 조선시대 내내 자주 발생했던 해난 사고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러한 성비불균형은 가족 제도 내에 육지 권세가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제주도 특유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첩 제도가 정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원래 조선시대 호적 작성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군역 자원의 확보였기 때문에, 남성의 기록이 비교적 충실한데 비해서 여성이 호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었던 점²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조선말기의 제주도 지역별 인구구성

다음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 기록이 있지만, 1904년에 작성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을 참고하기로 하자. 앞서 밝혔지만,

27) 조성윤(2000), 「이야기제주역사- 조선시대<13> 제주의 기근과 진휼」, 『제민일보』, 7월 5일.

28) 주25를 볼 것.

이 기록은 훨씬 줄여서 보고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호구가 있었던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모두 축소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향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 3〉 조선말기 제주도의 지역별 인구 구성과 주택 분포 (단위: 명, %, 間)

지역	호수	인구				건물칸수		
		합계	남자	여자	성비	합계	와가	초가
제주	13,416 (60.8)	45,715 (53.6)	21,735	23,980	90.6	32,479 (63.3)	234	32,245
대정	4,084 (18.5)	17,274 (20.2)	7,644	9,630	79.4	6,821 (13.3)	-	6,821
정의	4,572 (20.7)	22,341 (26.2)	10,800	11,541	93.6	12,055 (23.5)	3	12,052
전체	22,072 (100.0)	85,330 (100.0)	40,179	45,151	90.0	51,355 (100.0)	237	51,118

자료 : 「三郡戶口家間摺冊」, 光武 8년(1904),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표 3〉을 보면, 조선말기 지역별 인구 구성과 주택의 유형별 분포 현황을 알 수 있다. 22,072호, 85,330명으로 기록된 호구 기록은 〈표 2〉에서 보는 호구 기록들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철종대의 1만1천호, 8만여명의 기록이 1899년 읍지에는 1만7천호, 6만5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09년에는 3만3천여호에 12만4천여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1904년의 〈표 3〉의 호수는 그 중간 수준을 보여준다. 왜 이런 통계수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좀더 상세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우선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인구 분포와 주택 상황 만을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당시의 호구 중에서 호수는 60% 이상, 인구수는 54% 정도가 濟州郡, 말하자면 조선시대 내내 濟州牧에서 관할하던 지역에 살고 있었다. 반면 대정 지역은 호수와 인구수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비도 가장 불균형이 심해 여자에 비해 남자 인구가 크게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 전 지역에서 제주읍 지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정의가 그 다음, 대정 지역은 가장 적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구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주택 칸수를 살펴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초가(草家)에 비해 와가(瓦家:기와집)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전체 주택 가운데 약 5% 정도만이 기와집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가집이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제주읍 지역에 몰려 있다. 물론 여기에 공공건물을 포함한다면 제주읍 지역의 기와집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당시 제주민들이 대부분 초가집에 살았으며, 호당 약 2칸이 조금 넘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2칸 또는 3칸 짜리 집에서 여러 식구가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정현과 정의현을 비교해보면, 정의현이 호당 평균 2.6칸이었던 데 비해, 대정현의 주택은 호당 평균 1.7칸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현 보다 대정현 사람들이 훨씬 규모가 작은 주택에 살았던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목장 지대를 경작지로 바꾸면서 새로 형성되었던 광청리를 비롯한 일대의 화전 지역 주민의 주택 사정은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와집 237칸 가운데 제주성내와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이도, 삼도지역에 각각 41칸, 8칸, 57칸이 몰려 있어 모두 106칸으로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제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천을 중심으로 함덕과 신촌을 포함하는 지역에 86칸(각각 61칸, 15칸, 10칸)의 기와집이 밀집해 있어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왜 조천 지역이 이처럼 많은 기와집이 몰려 있었는지에 관해 아직 충분한 연구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 김씨 집안이 한말에 가까워지면서 부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집안이라는 점이다. 대대로 감목관을 역임하면서 유명해진 정의골 경주 김씨 집안이 조선후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자 집안으로 특히 말을 기르고 목장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해 김씨 집안은 향리 활동과 동시에 육지와와의 상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한말에 군수를 역임한 김희주(金熙胄)는 물론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事)』에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촌, 함덕 지역에는 이들 김씨들이 소유한 넓은 전답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조천 지역의 기와집들은 이들의 부의 상징으로 방성칠난 당시 민란군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해 대량 파괴되었던 사실이 『속음청사』에 기록되어 있다.

5. 결 론

이상 조선시대 인구 변화의 추이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조선전기 제주도 인구 에 관해서는 약간의 자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지만, 호적상의 기재를

토대로 볼 때 대체로 6만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보면 두배 정도 즉 약 10-12만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성종대 이후 지속적인 도망 때문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2-3만명 정도가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본다면 임진왜란 전후의 인구는 8만-10만 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의 호적상 인구는 6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시 추정치로 보면 12만명에서 16만명 선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조사방법이 인구 센서스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뀐 1925년 일제가 실시한 朝鮮國勢調査 결과²⁹⁾를 기준으로 하면서, 조선시대 호구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절반 수준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리³⁰⁾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략적인 추정은 좀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인구 변동상의 중요한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중세 시기 내내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면 인구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은 조선사회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조건, 그리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짓는 데 많은 제한이 따랐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심각한 기근이 자주 발생하여 인구 성장에 큰 제약 요인이 되었는데, 이를 소빙기(小氷期)說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¹⁾ 하지만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조선전기의 제주도민의 대량 이탈 현상에 관해서도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포작인이 중심이 된 유민들이 제주도를 떠나 경상, 전라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살던 포작인들이 임진왜란 전에 수군에 대량 편입

29) 朝鮮總督府(1925), 「朝鮮國勢調査報告」.

30) 權泰煥, 慎鏞廈(1977),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第14輯,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31) 소빙기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나종일(1992),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비평사.

이태진(1996), 「小氷期 천재변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global history의 한 章」, 「歷史學報」 제149집, 역사학회.

박성래, 소광섭, 김연옥(1996), 「이태진교수의 “소빙기 연구”에 관한 논의」, 「歷史學報」 제149집, 역사학회.

되어 있었고, 이들이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내내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출륙금지령에 관해서도 상세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륙금지령이 별도로 법제화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풀린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륙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실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출륙금지령이 조선후기 제주도민들에게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선말기 자료를 이용해서 제주, 대정, 정의의 삼읍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삼읍간의 인구구성과 주택 유형 및 규모의 차이가 이 시기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어떠했고,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Regarding the population of Jeju Island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we could not estimated easily because it is remaining just a little. But it is thought around 60,000 person based on the reaminde records. And If we consider the problem at investigation method, it will be able to presume about 10-12 ten thousand person live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15-16C. From the estimated population decreases 2-3 ten thousand person after continuous escape. the population is thought with the fact that they will be 80,000-90,000 person.

The growth of the population of Jeju Island during the late Chosun period was appeared slowly after the prohibition about moving out from island for Jeju people. But the size of the Jeju population always depended on the influence of the Natural catastrophe. According to the approximate th population figure, the population of Jeju Island during the late Chosun period was estimated roughly 120,000-160,000 person.

For further studies, we need more explanation concerning the reason why 2-30,000 was moved out from Jeju island, and about the proses and the result of the prohibition,